

다른 실학자들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것을
만들었을까요?



"나는 '실사구시파'에
속해요.
우리는 과학적인 연구와
방법을 통해
올바른 내용을 찾아요."

김정희 1786-1856

"나는 대동법이 시행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세금을 쌀로 받는 대동법이 시행되었고,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을
시장에서 사게 되면서
시장도 더 커지게 되었어요.
또한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내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이고자
했어요."

"근대 천문학에 관심을 가져서,
해와 달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땅이 움직인다는 것을
주장했어요.
청나라에 다녀와서
구구단을 소개한
'주해수용'을 썼어요."



홍대용 1731-1783

김육 1580-1658

실학박물관

기획 장덕호(관장)
진행 박영휘(기획운영팀장)
편집 황연정, 임진영(교육담당)
협조 조준호(학예팀장)
발행처 실학박물관

12283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747번길 16
TEL 031-579-6000~1 홈페이지 <http://silhakmuseum.or.kr>

초등학교 학년 반

이름

실학자의 대화 산책

전쟁을 겪고,
우리 백성들의 삶이 너무 힘들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



중농학파(정약용)와 중상학파(박지원)

정약용 "조선은 농업사회이기에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는 토지제도의 개혁이
필요해요."

정약용 "소수의 양반들이 전국 대부분의
토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토지 개혁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토지를 똑같이 나누어 주자고
주장하신 실학자도 있었어요.
저는 함께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쌀로
세금을 내는 '정전제'를 이야기했지요.
이런 내용을 포함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개혁에 관한 '경세유표'라는 책을
썼어요."

부관 정약용
1762-1836

박지원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공업이 발달해야 해요.
저는 상공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수레와 선박을 이용하여
물건을 교류하고
청나라의 선진문물을 배워야 한다고
열하일기에도 썼지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북학파'라고도 불러요."

우리는 주장하는 내용은 다르지만
목표는 하나예요.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예요.
이런 것을 실학이라고 해요.

연암 박지원
1737-1805

이익

홍매용

김육